

## 펭귄 부부의 자식 사랑

\* 본 원고는 미주 중앙일보 「오피니언」에 게재되었습니다.(’05년 9월 23일자)



김현영 / 펜실베이니아주정부 수의연구원, 재미수의사

올 여름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 중 하나가 “March of the Penguins”이었다. 이 영화는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도 등장치 않고 남극에 사는 펭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인 신비의 대륙 남극을 배경으로 일부일처주의 그리고 애뜻한 부성에 모성애를 보여주는 펭귄들의 가족 일대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프랑스에서 대학원까지 공부한 동물학 전공자로 실제 남극에서 1년반 동안 펭귄을 연구하며 직접 촬영했다. 자연의 순수함과 생명의 귀중함을 꾸밈없이 보여주는 펭귄의 생애는 짝을 만나기 위해 섭씨 영하 60도나 되는 혹한에서 70마일이나 되는 얼음길을 일주일간의 대행진을 한다. 정장된 턱시도를 입고 파티장을 향해 가듯 얼음 능선에 무리진 펭귄떼의 직립 보행은 뒤통거리고 느린 속도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한 줄로 리듬있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펭귄들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오랜 여행 끝에 목적지에 도달하면 수 천마리나 되는 무리 중에서 자유롭게 서로 짝을 구한다. 또 교합하고 산란하고 부화하여 생명을 탄생케 하며 자식들이 걷고 독립할 때까지 아빠 엄마가 교대로 함께 양육하는 특별한 가족관계를 만든다. 이 황제펭귄은 알을 일년에 하나만 산란한다. 어미 펭귄은 산란한 알을 아비 펭귄에게 넘겨주며 부화시키는 일을 맡기고 먼 바다로 먹이를 찾아 떠난다. 넘겨진 알은 아비 발굽 위에서 섭씨 영하 60도의 혹한 속에서 3개월간 품고 있다가 새생명으로 탄생시키고 있다. 어미가 알을 품어 부화하고 있는 일반 새들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새끼의 먹이와 자신의 영양을 위해 3개월 동안 바다로 떠났던 어미가 섭취한 먹이를 배 속에 저장하고 돌아와 그 동안 아비품에서 부화되어 탄생한 새끼 펭귄에게 입을 통해 먹이를 공급하며 이제는 어미가 새끼를 돌보게 되는 순간 아버지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떠난다. 3개월간 먹이를 구하러 떠나 있던 어미나 아버지가 돌아와 수 천 마리의 펭귄 무리 속에서 목소리만으로 식구들을 알아보는 모습이며 새끼 돌보기 임

무를 교대하면서 새 아기가 마침내 혼자 힘으로 독립할 때까지 지키는 모습 등은 우리 인간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와 의무를 일깨워 준다. 펭귄은 이 지구상 남반구의 17개 종류가 살고 있으며 20년을 살고 있다. 그 중의 황제펭귄은 키가 1.1m로서 가장 크며 철새가 아닌 오로지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온혈동물에 속한다. 영화에서는 알이 아버지 펭귄 발 위에 품어 부화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알이 부화하려면 최소한 섭씨 31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바깥기온이 섭씨 영하 60도인 것을 감안하면 신기하기만 하다. 보통 실험실에 바이러스를 저장하는 냉장고 안에 온도가 섭씨 영하 60도인데 이때 특수장갑을 끼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을 만지면 손가락이 그대로 달라붙는 경험을 하게 된다. 펭귄의 복부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어 그 속에서 알이 부화되고 있는데 이 주머니는 펭귄 신체의 일부분으로서 혈관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31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아버지의 체온은 섭씨 38도가 된다. 이 펭귄의 복부 주머니는 캥가루의 새끼를 위한 복부 주머니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새이면서도 날지 못하고 바다 속에서 헤엄을 치는 이 황제펭귄은 일년중 75%을 바다물에서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몸자체가 수영하기에 편한 유전형이어서 바다물에서 살게끔 창조된 특수한 생물체이다. 날개는 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빨리 이동하기 위해 노를 짓는 것처럼 특수하게 만들어졌으며 뼈 속이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져 물 속에서 오래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보통 날으는 새의 뼈는 속이 비어 있어 날기 좋게 창조된 것과는 정반대의 구조다. 이 펭귄들의 가족생활은 아주 보수적으로 일부일처주의를 철저히 지키며 자식을 낳아 양육할 때에도 부부합계 희생적으로 정성을 다해 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대수**

